

지역 소식통

부안, 봄철 산불예방 총력

부안군(권익현 군수)은 2021년 봄철 산불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120일간) 산불방지 대책본부...

이에 따라 군은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 1일~5월 31일) 동안 도시공민과에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13개 읍·면에도 대책본부를 운영해 상시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소방서, 군부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구축해 산불재난 대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설 명절 전후 성묘객과 귀향객이 많아짐에 따라 묘지 주변과 주요 등산로, 도로변 등에 소각금지판(500개), 산불조심 깃발(300개)을 설치해 산불예방에 집중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영양플러스 사업 오는 18일까지 추가 모집

고창군이 2021년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40명을 오는 18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영양플러스는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영양 보충 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관내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의 임신부와 6개월 미만 영유아로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 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6가지 보충식품 패키지 중 해당된 패키지가 월 1~2회 각 가정에 배송되며 정기적인 영양평가와 영양교육을 통해 맞춤형 영양 관리가 이뤄진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라벤더허브원 특혜 반박

정읍시 "잘못한 부분은 다시 되짚고 살펴 시정해"

불법전용산지임시특례기간인 민선 6기에 처리된 사항

정읍시가 지난 9일 오전 10시 전라북도청 정문 앞마당에서 정읍라벤더허브원 특혜 관련 정읍지역 3개 정당 22개 시민사회단체 일동(이하 단체일동) 명의의 공동기자회견과 관련 적극적인 압박에 나섰다.

시는 "한시로 특혜가 없었던 정읍라벤더 허브원! 전라북도 감사에서 부당한 특혜 무더기 적발"이라는 제하의 기자회견문과 관련 전북도의 감사(2020. 6. 18. ~ 7. 3. 감사 실시) 결과 중 "정읍 라벤더 허브원 관련 감사 지적 사항과는 상이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라벤더 허브원 관련 전북도 감사의 쟁점은 크게 ▲불법전용산지임시특례 신고수리 부적정(혼계)과 ▲법인소유(농업법인 승인) 농지를 개인이 경작하는 것으로 농지위원을 최초 작성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등의 업무 소홀이다.

먼저, 불법전용산지임시특례신고수리 부적정과 관련, 시는 민선 6기인 2017년 6월 3일부터 2018년 6월 2일까지 운영된 불법전용산지임시특례기간에 처리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정읍지역 521필지 184만2,584㎡를 처리했다.

라벤더 허브원도 이 기간 처리했는데, 구룡동 14-7번지 외 3필지 신청 면적(3만1,622㎡) 중 특례조건(2013년 1월 21일부터 3년 이상 계속 농지로 사용)을 충족하지 못한 일부 면적(1만4,894㎡)을 제외하고 처리해야 했으나 이를 잘못 처리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불법전용산지임시특례 대상자가 아닌데도 신고서를 수리하여 지목변경하도록 했으며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들을 훈계 처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는 분명 행정의 잘못입니다. 다만 이는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민선7기의 특혜가 아니라 민선 6기인 2017년 처리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법인소유(농업법인 승인) 농지를 개인이 경작하는 것으로 농지위원을 최초 작성, 보조금 지급받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관련해 전북도는 감사에서 경작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법인 소유 농지를 개인이 경작하는 것으로 농지위원을 최초로 작성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 역시 업무 소홀로 훈계처분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 시는 농지위반가 최초로 작성된 것은 민선 7기 출범(2018년 7월 1일 출범)전이자 민선6기 당시인 2017년 10월 11일이다. 당시 권모씨는 2016년 6월 8일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유) 송인 소유토지를 임차 계약(2만 4,713㎡)하여 농지위원을 신청했다. 또 이 농지위원에 근거해 임업후계자로 선정됐고, 임업후계자를 대상으로 공모한 산림청 공모사업(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에 응모(신청기간 2017. 9. 18. ~ 10. 19.), 선정돼 국도비 3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했다.

시는 적극적인 반박과 함께 "지역민 화합과 지역발전 가로막는 불필요한 비방과 논쟁은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불필요한 논쟁은 지역발전과 시민화합을 저해하는 걸림돌일 뿐으로, 갈수록 지자체 간 경쟁은 치열해지고 1년여가 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시민들은 지쳐 있다"면서 "지역이 한 걸음 더 내딛기 위해서는 이런 때일수록 지역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숙한 업무처리 등 행정의 잘못을 떠넘기거나 회피하지 않겠다. 잘못한 부분은 다시 되짚고 살펴 시정하겠다"며 "다만 지역민 간 불신을 조장하고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과 불필요한 논쟁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체류형 관광도시 박차

상하농원 농촌관광 신모델 개척 · 고창읍성 체험마당 운영

동호해수욕장 캠핑장 조성 · 문수산 편백숲 힐링 명소 개발 등

전북 고창군이 변화하는 관광환경을 선도하는 다각적인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군민과 관광객이 체감하는 지속 가능한 체류형 관광도시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

고창군은 민선 7기 '품격있는 역사 문화 관광정책' 3년차의 목표를 '짓고·높고·먹고·쉬는 체류형 관광도시 고창'으로 정했다. 산, 들, 강, 바다, 갯벌 등 고창의 우위 자원을 동력으로 소규모 맞춤형, 농촌체험, 웰니스 관광 등 코로나19로 바뀐 관광트렌드를 살려 수요 창출에 집중한다.

먼저, 군은 상하농원과 손잡고 건강한 먹거리를 짓고, 동물과 함께 뛰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자연속에서 쉬는 '대한민국 농촌관광'의 새로운 모델을 개척해 나간다.

상하농원의 개장 첫 해(2016년) 방문객은 약 1만 명이었으나 지난해 방문객은 20만명 이상을 기록했다. 코로나 19 여파로 해외여행이 감소한 데 따른 반사이익을 누리 셈이다.

앞서 지난해에도 '산업관광육성 공모사업'에 '짓다·놀다·먹다·쉬다 6차산업 관광프로젝트'가 선정되며 국내 관광업계가 주목하는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올해는 동리 신재호 선생 생가를 중심으로 마련된 '고창읍성 체험마당'을 중심으로 마련된 '고창읍성 체험마당'을 활용한다.

다양한 문화·체험 관광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소리꾼과 함께하는 솔바람 댕잇소리 고창읍성 여름나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여행객들은 고창읍성과 판소리박물관, 중거리당산과 고창전통시장(자유관광)을 걸으며 신중년 가이드의 진행에 새로운 즐거움을 얻었다.

또 가족단위 여행객이 머물며 자연 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동호해수욕장 일대에 국민여가 캠핑장을 만든다. 신기계곡과 명매기샘을 활용한 생태습지공원도 조성해 문수산 주변의 편백숲과 연계된 힐링 관광명소를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더해 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창군관광협회, 관광두레PD 등 민간 주도 DMO(지역관광 추진조직)를 적극 지원해 고창관광역량 강화를 꾀한다.

관광객의 소비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고, 더 많은 관광객이 지역을 찾는 관광생태계의 선순환이아말로 관광두레가 만드는 긍정적인 내비효과다.

특히, 지역민이 주도하는 고창군관광협회가 고창관광 홍보마케팅, 관련 종사자 친절서비스 교육, 컨설팅 등 실질적인 고창관광 진흥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설맞이 농·특산물 드라이브 스루 성황리

1500만원 판매고 기록

정읍시가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아 코로나19로 시름에 빠진 농가를 돕기 위해 기획한 '농·특산물 드라이브 스루 특판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시는 지난 9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정읍시청 내 주차장에서 '2021 농·특산물 드라이브 스루 할인 판매' 행사를 개장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돕고, 시민에게는 10~20%의 할인된 가격으로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열린 행사에서는 시민들의 큰 호응에 힘입어 사과와 배, 홍예향, 토마토, 방울토마토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 5개 품목과 한과, 청국장, 장아찌, 북분지주 등 8가지 가공품 선물 세트 등 13개 품목에 대해 1,500만원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지난 9일 정읍시청 내 주차장 '2021 농·특산물 드라이브 스루 할인 판매' 행사장에서 유진섭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도 판매에 나섰다.

이날 유진섭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도 직접 판매에 나서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함께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다졌다.

특히, 특판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소비자가 차량에 탑승한 채로 상품을 선택하면 시청 직원들이 트렁크에 실어주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도입해 행사장 내 접촉을 최소화한 줄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행정안전부 평가서 '우수'

정읍시(시장 유진섭)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자치단체 적극 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 행정 제도 정비 ▲적극 행정 실행계획 수립 ▲적극 행정 실행계획 이행 성과 ▲적극 행정 주민 체감도 ▲소극 행정 척과 등의 항목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도내 14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해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우수' 등급을 받은 영광을 안았다.

유진섭 시장을 포함한 전 공무원들은 지난해 적극 행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공직 내 적극 행정 분위기 확산과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시민이 공감하고 공무원이 실천하는 적극 행정 공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적극 행정 운영조례를 제·개정하며 선제적인 제도 정비에 앞장섰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함께 나누는 생활 속 건강 걷기 수기 공모전

정읍시는 2021년 '1530 워킹 정읍' 워크온 운영에 따른 '함께 나누는 생활 속 건강 걷기'를 주제로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생활 속 건강 걷기에 대한 추억을 공유함으로써 공감대 형성을 통한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실

내운동 및 체육시설 이용의 어려움 속에서 워크온을 활용한 건강 걷기 운동으로 몸소 체험한 내용을 수기에 응모하면 된다. 참여 대상은 만 19세 이상 워크온 가입 정읍시민이며, A4용지 2~3면 이내로 작성해 3월 2일부터 31일까지 우편,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